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www.103skcc.org

- 2020년 성탄 메시지 -

"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

(마태 1:23)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총과 평화를 청하게 됩니다. 곤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성탄이 희망과 위로의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중략>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것처럼 권세가 당당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필립 2,7) 이런 점은 예수님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황제가 명한 호적등록을 위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눕힙니다(루카 2,1-7).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몸을 누이신 것입니다.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낮은 곳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낮은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별빛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듯이(마태 2,1-12),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의 일터를 떠나 마구간을 찾아갔듯이(루카 2,8-18), 우리도 일어나 그 분께로 향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소유, 내 신념, 내 지식, 내 경험, 내 편을 고집하면, 구세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하느님께로 향해 걸어가야만 참 빛(요한 1,9)이신 구세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큰 기쁨과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선포하였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중략>

예수님은 비천한 종의 모습이지만, 사랑과 자비를 가득히 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곁에 머무르면 자신이 받은 힘과 희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이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가득 찬 고통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에 의탁하고,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을 향한 길을 깨끗하게 걷도록 합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영수경

성탄밤미사

(12월 24일, 저녁 7시)

구유예절

제1부 강생의 신비 묵상하는 말씀 전례

독서 : 이사야서 7:13-16

복음 : 루카 1:26-38

제2부 구유 안치식

구유 행렬과 안치

구유 축복

구유 경배

미사

대영광송

제1독서 이사야서 9:1-6

화답송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제2독서 티토서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복 음 루카 2:1-14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신앙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신비여 마실 적 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성탄낮미사

(12월 25일, 오전 11시)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경축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사신
강생의 신비의 참 뜻을 새깁시다.

입당송 :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
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대영광송

제1독서 이사야서 52:7-10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
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려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려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려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2독서 히브리서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위에 내린다.◎

복 음 요한 1:1-18 (또는 1:1-5, 9:14)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신앙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신비여 마실 적 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